

연천-철원 DMZ '자전거로 씩씩 달린다'

30일 '2015 트루 드 디엠지' 대회-경기-강원 상생협력 사업 일환



35.5 X 10.4 cm

한·미 군인 등 2000명 참가

경기도는 오는 30일 연천과 강원 철원지역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일대에서 자전거 행사인 '2015 트루 드 디엠지'(Tour de DMZ) 대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 행사는 강원도,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지난달 20일 강원도와 맺은 상생협력 사업

의 하나다. 두 지자체는 첫 협력사업으로 지난달 10~12일 경기도청에서 직거래장터인 '달려라! 김 자왕정대'를 열었다. 트루 드 디엠지는 두 번째 협력 사업이다. 공복-분단 70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연천공설운동장을 출발, 신방리역-신탄리역-백마고지역을 거쳐 철원 DMZ평화문화광장을 돌아오는 62km 구간에서 진행된다.

국방부의 6사단의 협조로 연천-철원 민통선 15km를 포함했다. 이번 행사에는 내·외국인과 한·미 군인 등 2000여명이 참가한다. 행사에 앞서 행정자치부, 경기도와 연천군, 강원도와 철원군, 대한사이클연맹 등 6개 기관은 '평화·통일 트루 드 디엠지 공동 협약'을 맺는다. DMZ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경기

김포와 강원 고성을 연결하는 최척의 동서횡단 종주코스를 개발하고 국제대회로 발전시키려 협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열리는 '트루 드 디엠지' 자전거 행사는 군악대 공연, 치어리딩, 최다참가단체상 시상을 비롯해 점심 장소인 철원 DMZ평화문화광장에서 트로트·퓨전 국악 공연 등이 진행된다.

0189 7191 www.wellnet.or.kr

'트루 드 디엠지' 30일 힘찬 페달... 2천여명 평화·통일 '은륜 물결'

공복 70주년을 기념하고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트루 드 디엠지(Tour de DMZ) 평화누리길 자전거 페어리드'가 오는 30일 열린다.

행정자치부, 경기도, 강원도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비경쟁 페어리드 부문으로 연천과 강원도 철원지역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일대 62km를 달리는 국민 화합의 장이다.

공동 개최는 지난달 20일 강원도와 맺은

연천 공설운동장~신탄리역~백마고지역~철원 DMZ평화문화광장 강원도 두번째 상생협력... A·B·C그룹 나누어 민통선 62km 라이딩

상생협력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두 번째 협력사업이다. 두 지자체는 첫 협력사업으로 지난달 10~12일 강원도청 앞에서 직거래 장터인 '달려라! 김 자왕정대'를 열었다. 라이딩은 A·C그룹(상급자), B·C그룹으로 진행되며 상별로는 남자 1천144명, 여

자 385명이 참가한다. 또 외국인 100여명과 특별 초청으로 미 장병 130명, 군 장병 300명 등 모두 2천여명이 라이딩을 함께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07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558명, 인천 102명, 충남 25명, 경북 25명, 강원도 17

명, 충북 4명, 전남 1명 등이다. 코스는 연천군 공설운동장을 출발해 신방리역~신탄리역~백마고지역을 거쳐 철원 DMZ평화문화광장을 돌아오며 국방부와 6사단의 협조로 민통선 구간 15km를 달리게 된다. 이들은 라운딩 내내 세계적인 생태계 보고인 DMZ의 청정 자연을 가슴으로 만끽하고 역사적 유물과 비경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공복 70주년을 맞아 조국을 위

해 순국한 선열 및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가리면서 남북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페달을 밟을 예정이다. 행사에 앞서 행정자치부, 경기도와 연천군, 강원도와 철원군, 대한사이클연맹 등 6개 기관은 '평화·통일 트루 드 디엠지 공동 협약'을 맺는다. 협약은 DMZ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경기 김포와 강원 고성을 연결하

는 최척의 동서횡단 종주코스(경기 김포~강원 고성)를 개발하고 국제대회로 발전시키려 협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자전거 행사에는 군악대 공연, 치어리딩, 최다참가단체상 시상을 비롯해 점심 장소인 철원 DMZ평화문화광장에서 트로트·퓨전 국악 공연 등이 진행된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15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인진 레이스와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활동한다. 경쟁회차

34.7 X 7.6 cm

'뚜르 드 DMZ', 30일 연천·철원 일대서 열려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2015 뚜르 드 DMZ(Tour de DMZ) 평화누리길 자전거 퍼레이드'가 오는 30일 자전거 동호인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철원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로 3회째인 이번 대회는 행정자치부와 경기도, 강원도가 지역상생발전의 의미를 담아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연천공설운동장에서 출발해 신탄리역을 경유, 강원도 철원군의 백마고지역, 월정리역, 노동당사를 돌아오는 경로로, 경기도와 강원도를 잇는 총 61Km 구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특히, 민간인통제구역인 백마고지역에서 강원선 철도중단역인 월정리역(철마는달리고싶다) 15Km 구간은 남방한계선 철책을 바라보며 남북분단의 아픔을 실감하고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질 수 있어 눈길을 모으는 구간입니다.

행정자치부와 경기도 등 지자체는 중장기적으로 외국 선수와 외국인 자전거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국제대회로 발전시켜 남북화해와 통일의 밑거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평화방송 김성덕 기자

PBC 김성덕 기자 |

14.4 X 9.4 cm

연천~철원 DMZ 자전거 행사...경기·강원 협력사업

[경기방송 = 오인환 기자] 경기도는 오는 30일 연천과 강원 철원지역 민간인출입통제선 일대에서 자전거 행사인 '2015 뚜르 드 디엠지'(Tour de DMZ) 대회를 엽니다.

강원도,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여는 이 행사는 광복·분단 70년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연천~철원 민통선 15km에서 펼쳐집니다.

참여자 2천여명은 연천공설운동장을 출발해 신탄리역~신탄리역~백마고지역을 거쳐 철원 DMZ평화문화광장을 돌아옵니다.

행사에 앞서 행정자치부, 경기도와 연천군, 강원도와 철원군, 대한사이클연맹 등 6개 기관은 '평화·통일 뚜르 드 디엠지 공동 협약'을 맺습니다.

오인환 kfmbedo@kfm.co.kr 수도권에 살아있는 뉴스 경기방송 뉴스 FM99.9MHz

14.4 X 6.7 cm

'DMZ 자전거 질주' 뚜르 드 디엠지 30일 개최

전재홍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철원 지역의 민간인 출입통제선 일대를 자전거로 달리는 '뚜르 드 디엠지' 행사가 오는 30일 열립니다.

광복 70년을 기념해 경기도와 강원도가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내·외국인 2천여명이 참가해 연천에서 철원까지 민통선내 15킬로미터를 자전거로 달릴 예정입니다.

14.4 X 5.6 cm

DMZ 자전거 타고 통일 꿈 다진다

분단 70돌 맞아 '평화누리길 퍼레이드'

강원 철원을 흥원리에 자리한 월정리역은 경원선 최북단이다. 남방한계선(군사분계선에서 남쪽 2km 거리에 동서로 그은 선. 남·북방한계선 사이 4km가 완충지대인 비무장지대(DMZ))에 근접했다는 이야기다. 광복 열흘째이던 1945년 8월 25일 서울과 원산을 잇던 철로는 끊겼다. 1914년 8월부터 222km를 달리던 열차도 멈췄다. 31년 만이다. 그나마 반쪽으로 운행했던 철로마저 6·25전쟁 탓에 발목이 잡혔다. 월정리역엔 마지막 기적을 울린 객차를 세워 뒀다. 앞에는 '철마는 달리고 싶다'라고 적힌 팻말이 걸렸다. 현재 서울 용산에서 철원을 대마리 백마고지역까지 95km만 운행되고 있다.

백마고지 또한 뼈아픈 역사를 품었다. 해발에 따라 '395고지'라고도 부른다. 전쟁 때 심한 포격으로 산등성이가 허영게 벗겨져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흰말이 누운 듯한 모양을 한 데서 유래했다. 분단 직전까지 운행됐던 백마고지역~군사분계선 11.7km를 복원하는 공사가 오는 8월 첫 삽을 뜬다. 2017년 하반기엔 철마가 다시 달리게 되는 것이다.

철원을 관전리 '노동당사'도 눈여겨볼 만하다. 북한 땅이었던 1946년 말 철원군 조선노동당이 지은 러시아식 3층 건물이다. 전쟁 참화로 허물어져 골조만 남아 있다. 검게 그을린 3층 건물의 앞뒤엔 포탄과 총탄 자국이 촘촘하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1994년 '발해를 꿈꾸며'의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곳이어서 꽤 유명해졌다.

분단 70돌을 맞아 DMZ를 자전거로 달리며 통일 의지를 다질 시간이 마련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남경필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자전거 동호인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DMZ 평화누리길 자전거 퍼레이드' 행사가 오는 30일 오전 9시에 열린다. 경기 연천공설운동장을 출발해 백마고지역, 월정리역을 거쳐 노동당사를 반환점으로 돌아오는 62km 코스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13.2 X 15.8 cm